

막강 마운드·불붙은 타선... KIA, 2위 보인다



가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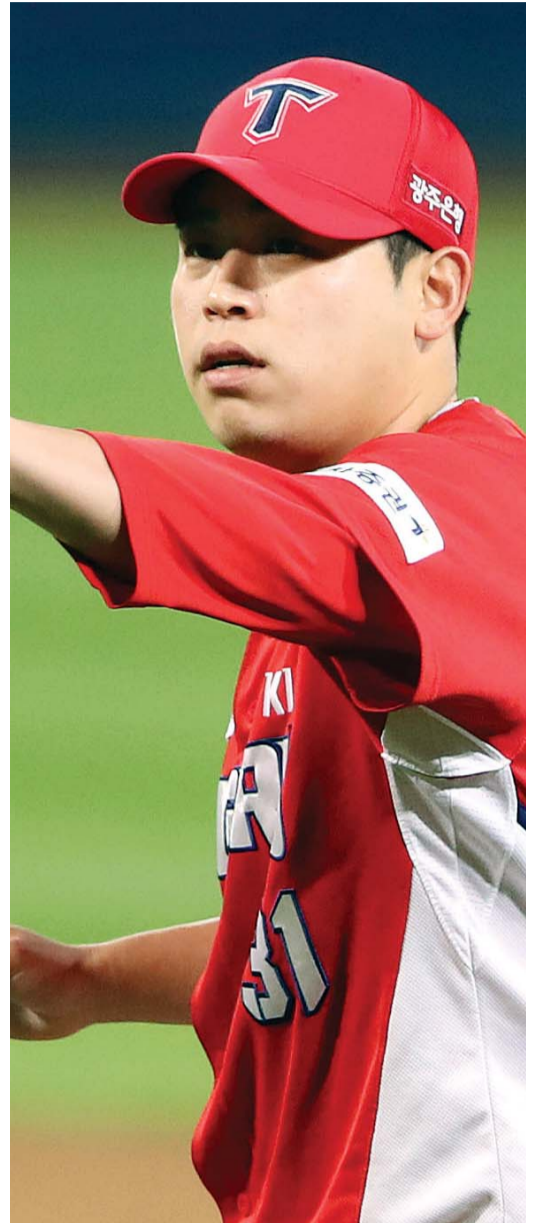
김선빈



이창진



김규성



박준표

일요일 9연패에서 탈출한 '호랑이 군단'이 2위에 도전한다.
 KIA는 지난 26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8-5 승리를 거두며 일요일 9연패를 끊어냈다. 연패에서 탈출한 KIA는 3위 자리도 지켰다.
 비로 두 경기를 치르지 못한 지난주, KIA는 4경기를 쓸어담으면서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었다. 4연승을 달리면서 2위 두산 베어스가 두 경기 차 앞으로 다가왔다. KIA는 새로운 한 주 가봉을 앞세워 2위 추격에 나선다.
 27일부터 KT 위즈와 안방에서 주중 3연전을 갖고, 31일에는 사직으로 건너가 롯데 자이언츠와 만난다. 패배를 잊은 가봉이 2위 싸움의 전면에 선다.
 지난 21일 한화전에서 6.2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던 가봉이 비로 넉넉하게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가봉은 '승리'의 아이콘이다.
 지난달 12일 문학원정 경기 포함 최근 7경기에서 가봉은 4승을 수확했다. 남은 세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경기는 모두 KIA의 승리로 끝났다. '가봉=승리' 공식이 만들어졌다.
 지난 7월 9일 KT전에서 가봉은 4.1이닝 7피안타 3볼넷 4실점(3자책점)으로 5회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흥삼삼이 1.1이닝을 무실점으로 지키면서

T 타이거즈 전망대
투·타 안정 속 지난주 4전 전승
일요일 연패 9게임만에 종료
2위 두산과 2게임 차 '가시권'
이번주 KT·롯데와 6연전
김규성·이창진 타선에 활력
김선빈, 선수단 합류해 복귀 시동
윌리엄스 감독 '행복한 고민'
 역전의 발판을 놓았고, 나지완이 만루포로 승부추를 기울이면서 KIA는 10-4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에너지 충전용 끝낸 가봉이 새로운 한 주 두 경기를 책임지면서 승리를 부르게 된다.
 KIA는 지난주 비로 두 경기를 쉬어가면서 마운드 재장비를 끝냈다.
 세 경기 연속 3실점으로 흔들렸던 문경찬이 컨디션 관리를 끝내고 지난 25일 삼성전을 통해서 마운드에 복귀했다. 한 차례 선발 등판을 쉬었던 임기영

도 26일 선발로 재출격해 승리를 챙기는 등 잠시 자리를 비웠던 선발과 불펜 자원이 돌아왔다.
 양현종도 앞선 한화전에서 7경기 만에 승리투수가 되면서 분위기가 전환을 했다.
 '불펜의 핵' 박준표와 전상현은 강렬한 피칭으로 4연승의 중심에 서는 등 마운드 힘이 좋다.
 타선도 시작과 끝이 좋다.
 꾸준한 톱타자 이창진과 상승세의 9번 김규성이 타선의 짜임새를 더해주고 있다.
 이창진은 26일 4안타 4득점의 맹활약으로 일요일 연패 탈출의 주역이 됐다. 4안타는 이창진의 한 경기 개인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 풀타임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구 대처 능력이 좋아지면서 이창진의 타격에 힘이 실렸다. 여전한 타석 집중력과 혼신을 다한 질주가 이창진을 더욱 빛나게 한다.
 프로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규성도 매 경기 성장하고 있다. 과감하면서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김선빈의 수비 공백을 잊게한 김규성은 최근 타석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김규성은 지난주 4경기에서 4개의 안타를 만들며 0.364의 타율을 기록했다. 4개 중 두 개의 안타는 데뷔 홈런과 3루타였다.
 개막 전 연습경기에서 때서운 타격 실력을 발휘했던 김규성이 타석에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

여주면서 KIA의 순위 싸움에 힘이 실렸다. 김선빈도 26일 선수단에 합류해 기술 훈련 등을 시작하면서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 기용을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다.
 한편 KIA의 베테랑 최형우와 나주환은 새로운 한 주 개인 기록 달성을 노린다.
 최형우는 통산 4번째 2루타(400개) 타이틀을 놓고 한화 김태균과 경쟁한다. 김태균이 2개, 최형우가 3개 남겨졌다. 나주환은 6개의 안타를 더하면 99번째 1000안타 주인공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중간순위 (27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67	44	2	21	0
2	두산	68	40	0	28	5.5
3	KIA	66	37	0	29	7.5
4	키움	70	39	0	31	7.5
5	LG	68	36	1	31	9
6	KT	68	34	1	33	11
7	삼성	68	34	0	34	11.5
8	롯데	66	32	0	34	12.5
9	SK	68	24	0	44	21.5
10	한화	69	17	0	52	29

톰프슨, 7년만에 왕좌

PGA 3M오픈... 김시우 공동 46위

마이클 톰프슨(35·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승 이후 7년여 만에 두 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톰프슨은 27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블레인의 TPC 트윈시티스(파71·7312야드)에서 열린 3M오픈(총상금 66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슈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4언더파 67타를 쳤다. 15언더파 198타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톰프슨은 최종합계 19언더파 265타를 기록, 2위 애덤 롱(미국·17언더파 267타)을 두 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3년 3월 혼다 클래식에서 PGA 투어 첫 승을 신고한 뒤 우승이 없던 톰프슨은 약 7년 4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 통산 2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18만 8000 달러(약 14억 3000만원)다.
 이번 우승으로 그는 2022시즌까지 PGA 투어 카드를 지키게 됐고, 다음 주 월드골프챔피언십(WGC) 페덱스 세인트루드 인비테이셔널과 다음



달 초 시즌 첫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 9월 US오픈 출전권도 거머쥐었다.
 톰프슨, 롱에 이은 공동 3위(16언더파 268타)에는 토니 피나우, 찰스 하월 3세, 3라운드 공동 선두였던 리치 워런스키(이상 미국) 등 무려 9명이 이름을 올렸다. 디펜딩 챔피언 매슈 울프(미국) 등은 공동 12위(14언더파 270타)에 자리했다.
 한국 선수 중에는 김시우(25)가 공동 46위(8언더파 276타)에 오른 게 가장 좋은 성적이다. 최경주(50)는 61위(4언더파 280타), 이경훈(29)은 66위(3오버파 287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좌타자 최지만, 우타석에서 ML 첫 홈런

원손 타자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이 오른손 타자로 등장해 홈런을 쏘아 올리는 진기록을 쓰고 팀의 대역전승에 크게 기여했다.
 최지만은 2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20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1루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치고 2타점을 수확했다.
 안타가 곧 최지만의 시즌 첫 홈런이었다. 그것도 우투 좌타인 최지만이 오른손 타석에서 친 만화화도 같은 포물선이었다.
 최지만은 0-4로 끌려가던 6회 말 선두 타자로 나

와 토론토의 두 번째 투수 좌완 앤서니 케이를 상대할 때 좌타석이 아닌 우타석에 들어섰다.
 최지만은 초구 시속 145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잡았다. 타구는 직선타 형태로 쪽쪽 뺏어가 좌중간 담을 훌쩍 넘겼다.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홈런이었다. 빅리그 5년 차인 최지만이 오른쪽 타석에서 친 첫 안타이자 첫 홈런이다. MLB닷컴은 전날까지 빅리그 통산 860타석을 모두 좌타자로만 나섰던 최지만이 오른손 타자로 처음으로 나서 비거리 131m짜리 홈런을 쳤다며 타구 속도는 시속 177km로 올해 탬파베이 타자 중 가장 강력한 타구를 날렸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에르난데스 화끈한 신고식... 전남, 4경기 연속 무패

‘K리그2’ 경남과 홈에서 1-1
 에르난데스, 투입 10분만에 동점골
 다음달 1일 제주와 3위 놓고 격돌

전남드래곤즈가 순위 싸움을 위한 '천군만마'를 얻었다. 전남의 새 외국인 공격수 에르난데스가 경기 투입 10분 만에 데뷔골을 터트리면서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었다.
 전남은 지난 26일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2020 K리그2 12라운드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연승에는 실패했지만 선제골을 허용한 뒤 동점골을 넣으면서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었다.
 전남이 순위 싸움을 위해 야심차게 영입한 브라질 그레미우의 '특급 유망주' 에르난데스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전남은 전반 24분 만에 경남 룩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41분에는 올 시즌 전남의 '잔물 수비' 중심인 윌리엄스 무릎 통증으로 조원형과 교체되면서 약세가 겹쳤다.
 위기의 순간 에르난데스가 화끈한 신고식을 치렀다. 후반 7분 그라운드 투입되면서 K리그에 첫선을 보인 그는 빠른 몸놀림과 발차간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었고, 투입 10분 만에 원발로 경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추경호와 임찬율의 부상으로 고민에 빠진 전남에는 전금 같은 동점골이었다.
 에르난데스는 브라질 1부 세리에A 데뷔를 앞두고 있던 유망주. 코로나19로 시즌이 연기되면서 K리그로 발길을 돌렸고, 새 리그에서 10분 만에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전남은 값진 승점을 추가하면서 3위를 가시권에 두게 됐다.
 전남은 4경기 무패를 달리며 승점 18(4승 6무 2



전남의 새 외국인 공격수 에르난데스가 지난 26일 경남과의 K리그2 12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17분 골을 넣은 뒤 이후권과 환호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패)를 만들었다. 대전시티즌에 1-2로 패한 3위 제주 유나이티드가 6승 2무 3패(승점 20)로 승점 2점 차로 다가왔다.
 공교롭게도 다음 라운드에서 만나게 되는 상대가 제주다.

전남은 내달 1일 오후 7시 제주로 가서 '3위'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된다.
 12경기 7실점의 막강 수비력을 과시하는 전남이 새로운 창까지 더해 K리그2 순위 싸움의 북병으로 떠올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